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얇은 흑백 필름 속 그녀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막 상영이 끝난 1965년 작품 '붉은 수련'에서 그녀는 광기 어린 여자였다. 청순한 모습의 그녀가 갑자기 돌변, 기모노 끈으로 살인을 자행하는 장면은 섬뜩했다.

광주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구로사와 아키라 특별전'(20일까지)에 13일 특별한 손님이 다녀갔다. 120여편의 영화에 출연한 일본 대표 여배우 가가와 교코. 올해 여든 두살의 그녀는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를 비롯해 나루세 미키오, 미조구치 겐지 등 내로라하는 일본 거장들과 작업한 명배우다.

구로사와 아키라와의 만남

그녀의 한국행(行)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이나 '영화의 도시'라 일컬어지는 부산이 아닌, 광주에서 유일하게 행사를 진행한

시인 정소파와 여배우 가가와 교코

건 광주사람들에겐 참 행복한 일이었다. 구로사와 특별전 역시 광주와 서울 두 곳에서만 열리고 있다. 이날 관객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구로사와 감독과 작업한 소회 등을 조용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서울에서 일부러 다녀온 영화관의 질문에는 감사의 마음도 표했다.

다음날 인터뷰 차 호텔 커피숍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다. 단아한 모습의 그녀는 여든 둘의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막 씻어낸 것 같은 느낌의 배우"라 칭했다는 게 이해가 됐다. 곁에 앉은 평론가 오타카 요코씨가 칭찬을 할 때마다 수줍어하는 모습이 꼭 '소녀'같았다.

외파되게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 내내 '엄마 미소'가 지어졌다. 인터뷰 내용과 별개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운을 간직하고 그녀 속에 더 없이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가와와씨는 지금도 활동하는 현역 배우다. 오타카씨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드문 경우라고 한다. 특히 여배우들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중년이 되면서부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은둔하는 배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을 만나는 그녀는 일본 영화계의 귀한 존재라고 자랑했다.

20년 인연을 맺어온 요코씨는 그녀의 통

런 비결로 "인생을 대하는 그녀의 자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꼽았다. 항상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배우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는데"라는 생각을 품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한결같은 모습이 '82세 현역배우'를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었다.

나이들의 아름다움

지난 8일 광주일보를 받아든 독자들은 마음이 "짠해지는" 기사와 사진 한장을 접했다. 101세로 세상을 떠난 정소파 시인의 사진이다. 하얀 모시 한복을 차려입고 편안해 보이는 시인의 모습은 꼭 '소녀'같았다.

타계하기 한달 전 인터뷰를 다녀온 후배 기자는 당시 "노시인의 모습은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인자함과 친근감, 친진난민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한장의 사진'에서 후배 기자들의 느낌을 그대로 받았다.

지난해 100세를 기념한 그의 인터뷰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늘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었다.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어나 작품 구상을 하고 아침을 먹어 뒤 시와 시조를 쓰고 운동을 한다'는 대목.

최근 감명깊게 읽은 책 중 하나가 텐도 아라타의 '애도하는 사람'이다. 주인공은 신문 부음을 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무 연도 없는 죽은 자를 애도한다. 그는 죽음을 대할 때마다 딱 세가지만 묻는다. "돌아가신 분이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정 시인의 부을 기사를 접하고 이 책이 떠오른 건 필자가 '사랑'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년의 세월을 살아낸 이가 마지막 남긴 미소와 말은 '나이들의' 행복과 향기로움을 온전히 전해주고, 나의 노년을 생각해 보게 했다. 감사드린다.

작은 일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배우 가가와 교코, 늘 하던 대로 100년을 살다 떠난 시인 정소파. 그들의 향기가 오랫동안 곁에 머물 것 같다.

가와와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 60세에 일본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미다다요'(18일·19일 광주극장)와 '천국과 지옥'(18일)에서 그녀의 매력을 접해보시길.

/mekim@kwangju.co.kr

은펜클럽



옥영석
2005년 7월 수상자·농협중앙회

한 취업포털 사이트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일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짓말을,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자네만 믿네"라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듣기에 따라 상사에게 격정까지 치지 않으려는 선의의 거짓말로 느낄 수도 있고, 부하직원을 독려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쓰다 보면, 곧 본심이 탄로나기 쉬운 말이다.

기고



박용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소장

1872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엘로우스톤국립공원을 지정한 후 100여년만인 1967년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13년 3월 4일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이 탄생하였다. 광주광역시(동구, 북구)와 전라남도(화순군, 담양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이다. 1988년 월출산과 변산반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절영지회(絶纓之會)

어렵게 승진해서 은행지점에 근무하는 친구는 그 거짓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각종 신상품이며 목표가 지점에 주어지면 그 목표를 탐벌, 개인별로 나눠주고, 평가하고, 실적 나쁜 직원 대책보고 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란다.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았다 생각되면 은근한 항의가 들어오고 부하직원들끼리 어울려 나가는 걸 보면 자신을 욕하는 것만 같아 괴롭기만 한데, "자네를 믿는다"는 뻔한 말이라도 해줘야 상대도 자신도 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 말은 한두 달이면 유효기간이 다 될 것이고, 그들의 관계는 입에 발린 소리만 오가는 삭막한 관계로만 남기 십상일 것이다.

열국지 초장왕편에는 부하를 아껴 목숨을 건진 장왕의 이야기가 나온다.

전쟁이 끝나 장왕이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밤이 되자 사방에 많

은 촛불을 켜고, 주홍이 오르자 장왕은 총애하는 애첩 허희를 시켜 장수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르게 했다. 절세미녀가 술을 따르자 장수들이 모두 일어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술렁거렸다. 반쯤 돌았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촛불들이 모두 꺼져 암흑천지가 되었다. 그때 누군가 슬며시 허희를 끌어안았다. 불의의 성폭행을 당한 애첩은 왕에게 고한다. 어느 발칙한 놈이 자신을 껴안기에 갓끈을 하나 끊었으니 열면 불을 켜 사실을 밝히라고 말한다. 이에 장왕은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격식을 벗고 모든 장수들은 왕편에 갓끈 끊고 마시라"고 명령한다.

수년 후 진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장왕은 진나라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한다. 그때 한 장수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장왕을 구하고는 크게 승기를 잡았다. 왕이 후한 상을 주려 하자 그 장수는 "이미 큰 상을 받았는데 염치없이 어찌 또 받았겠습니까?"하며 뿔뿔한 전 갓끈의 죄인임을 밝혔다.

초나라는 계속 승승장구했고 장왕은 춘추시대의 5대 강자가 할 춘추오패의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친다. '절영지회(絶纓之會)'의 유래이다. '갓끈을 끊고 격의 없이 즐기는 자리'가 남에게 너그러운 덕(德)을 베풀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계산은 명확하고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디지탈시대를 사는 요령이겠지만 엄격히 따지고 분별하기보다 때로는 허물을 덮고 다독여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자를 쳐서 값있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를 인정해주는 상사의 보살핌과 배려는 불쌍이라도 뛰어들게 할 만큼 마음을 움직인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이를 위해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하지 않던가.

.....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를 개소하며

서는 각 광역자치체당 1개 사무소 설치원칙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광주 동구)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전남 화순)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끈기와 노력의 산물이다. 국립공원이 양질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핵심요소이자,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 팔공산과 광양 백운산 등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정을 견학하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공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 관리 시보다 연간 3배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우수한 지역인재 15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문화·협력·상생관계 유지를 목표로 지역주민 공원관리 참여, 사유지

매수, 평등마을 조성, 생태나누리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전남(화순, 담양) 지역은 연계 교통편이 없고, 진입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탐방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질 높은 탐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등산의 전남지역 주요 탐방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주차장, 야영장 등 탐방지원 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생태복지 혜택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원관리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공원관리 기반 마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원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탐방객 수 파악과 탐방패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거점에 탐방객 수 계수시스템을 설치하였고, GPS 장비와 줄자를 이용해 탐방로를 실측하여 이징

표를 설치하였다. 또한 동·식물과 문화자원 등 총 23개 분야의 공원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탐방자원을 발굴하고 공원의 생태·문화적 가치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등 과학적인 공원관리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전남지역(화순, 담양)은 기반시설과 자료가 전무한 백지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25년 만에 신규 지정된 국립공원의 관리 기초를 구축해야 하는 임무를 맡아 공원자원 보전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지정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 수준의 공원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무등산국립공원에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GAP을 도입한지 벌써 8년이나 지나고 GAP을 알리는 노력도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 특히 농산물을 사는 도시 주부들조차도 GAP을 제대로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GAP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피망플리는 농민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GAP 홍보에 더욱더 적극 신경써야 한다.

▲유원권·목포시 해안동

社說

전남 연안 아열대성, 생태계 보전 시급하다

전라도 갯벌과 인근 바다의 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바다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해 아열대와 한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이 출현하고 있는데다 하천수, 한류, 난류 등이 만나는 해역의 특성상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15일 발표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2006~2013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에는 총 4874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역별로는 전남을 포함한 남해에서 2523종의 생물종이 출현해 가장 많았고, 제주 2302종, 서해 2131종 순이었다. 갯벌의 생물 다양성도 다른 육지보다 높다고 한다. 국내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남 연안은 갯벌 생명체의 보고(寶庫)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갯벌의 42%를 차지하는 전남 갯벌의 한 해 경제적 가치가 무려 6조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황금알을 낳는 천

해의 자원'임이 입증됐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남해안에 아열대성 생물 출현과 서식처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수 온도의 상승과 대마난류의 영향으로 제주 일대 해역만 하더라도 죽음의 바다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다를 낀 인근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바다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광역 통합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하는 게 현재로서선 급선무다. 지자체마다 알다시피 갯벌과 연안에 양식장을 늘리는 등 개발에 나선다면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어민들도 생계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 등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와 전남도 역시 '바다 숲' 조성과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수 정화, 해양생태도 등 급 지정 등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음주 살인질주에도 경찰은 구경만 하다니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매달고,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택시기사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만 검거과정에서도 주한 운전자가 도심을 살인 질주하는데 경찰은 방관만 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음주운전과 경차관에게 상해를 입힌 나모(2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 14일 밤 광주시 서구 신계계백 화정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검거하려던 경찰을 매단 채 30여m를 질주해 부상을 입혔다.

이에 앞서 나씨는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추격에 나선 같은 회사 택시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기도 했다. 나씨는 광산구 우산동 자택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5명에게 붙잡혔다. 나씨는 이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상태였고, 도망다닌 거리는 북구~동구~서구~광산구까지 총 10km에 달했다고 한다.

한 명의 음주운전자가 시속 160km가 넘는 광란의 도망극을 벌이며, 도심 도로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뜨렸는데도 경찰은 "2차사고 우려 때문에 추적을 포기했다", "112에 상황을 전파했다"는 등의 공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불특정다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고의 살인'이라는 점에서 중대 범죄이며, 이런 범죄자를 초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질주토록 방치한 것은 교통치안엔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시시비비를 따져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권력 유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 단속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 말고는 대안이 없다.

無 等 鼓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3원상이 끝나고, 신위가 종묘에 들어갈 때 짓는 '묘호'와 명나라가 내린 '시호', 후대 왕이 올린 '존호', 그리고 신하들이 올린 '시호'가 합쳐지면서 총 20자를 육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태조 이성계의 정식 호칭은 '태조강헌지인계운성문신무정의광덕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으로 18자였으며, 세종은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으로 14자였다.

이름과 명에 중시하는 유교 국가에서 왕의 호칭을 어떻게 짓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지만, 왕들은 27명의 왕 가운데 '조'가 붙은 왕은 7명에 그쳤다.

오늘날엔 절대권력자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평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임기를 마무리한 우리나라 10명의 대통령 중 '조'로 평가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로써 나라를 다스리고 문물을 융성케 한 왕에게는 '종'이라는 묘호가 붙여져 왔다.

따라서 임금으로서는 당연히 예의상 붙여주는 평범한 '종'보다는,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것저것 보이는 '조'를 선호하게 됐다.

임진왜란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나라를 풍전동화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선조의 묘호도 원래는 선종이었으나 나중에 광해군에 의해 선조(宣祖)로 바뀌었으며, 인조 역시 '종'을 붙여

조(祖)와 종(宗)



려다 '조'로 바뀐 경우가 다. 하지만, 절대권력자인 왕들이 아무리 '조'를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신하들 역시 만만찮아 조선 역대

27명의 왕 가운데 '조'가 붙은 왕은 7명에 그쳤다.

오늘날엔 절대권력자인 대통령 역시 자신의 평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임기를 마무리한 우리나라 10명의 대통령 중 '조'로 평가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홍행기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위해 GAP 적극 홍보를

(농산물우수관리)

마트에 들어서 물건을 사던중 한 주부와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딸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됐다. 농산물 코너 한편에 GAP라 적혀져 있었는데 주부가 희 지내치며 딸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딸이 "그거? 우리 옷 브랜드인가 본데, 왜 농산물 코너에 있지?"라며 의아해 했다.

미국 의류 브랜드 중 겸(GAP)이라는 게 있고 요즘 젊은이들중 웬만하면 GAP후드티 한 짝씩은 입어 봤을 것이다. 물론 GAP은

오래된 의류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두 모녀 모두가 이게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일컫는 말이란걸 모르고 있어서 안타까웠다.

GAP은 벌써 2003년부터 도입한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이다.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농약과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위해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그 관리사항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마련

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하며 GAP위생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론 GAP 인증을 받은 우수농산물 인증품에는 반드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재배 이력을 관리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을 '역 추적'해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체계가 확보되면 농약이나 비료 등 영농자재 사용내역, 유통경로 등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 취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 F A X 222-8005 > 광고매체국 227-9600 < F A X 227-9500 > 디지털실 2200-536 프로젝트팀 2200-555 ※구로로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 F A X 222-0195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02-773-9335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